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공감뉴스 전북을 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위발우로 1614(상림동 60)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1월 14일(화) 제 3017호



전북도 돌봄통합지원 정책방향 모색 포럼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13일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전북도의회>

최상목·이재명, 尹 체포영장 집행 두고 정면 충돌

최상목 "체포 과정, 불상사 안돼" vs 이재명 "그러면 안돼"
 이재명 "대한민국 불안정 주범은 최상목 권한 대행" 직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지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 협의를 활발하게 해주길 기대한다"며 "여야정협체에서 국정 협의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공조본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강력한 강제 집행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글쎄요,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면서 "정국이 안정이 되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라며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 입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며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안인데 경제회생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반박했다. 또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며 윤 대통령 체포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가 법을 어기고 있다"며 "왜 상설특검 검사 지명 의뢰를 하지 않는 거냐, 즉시 하게 되어 있지 않냐, 직무 유기 아니냐, 경찰이 범인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데에 총기를 들고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이 명백한 범죄행위를 왜 방치하나"고 최 대행을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입으로는 경제, 경제 안정 노래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이 최상목 대행이다"며 "말로만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공직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며 "정치에 개입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임명하면 안된다"고 최 대행을 압박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도 노후 산단, 창의·혁신 공간 변신

도, 관리계획 수립해 산업고도화·첨단산업 전환 목표
 군산·완주 산단 구조고도화...스마트그린산단 추진
 70개 산단 국비 등 593억 투입, 신성장산업 거점화
 산업구조 개편·스마트화로 新혁신성장 선도산단 조성

전북자치도가 노후된 산업단지인 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창의·혁신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산업단지 관리계획을 수립해 미래 신성장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거점으로 변모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도는 도내 산단혁신을 위한 콘텐츠를 발굴, 전북만의 차별화된 산단 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올해 산업단지 관리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지난 연말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3개 국가산단과 7개 일반산단, 60개 농공단지 등 모두 70개

산업단지에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 모두 5백93억5천여만원이 각종 세부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착공 후 20년이 지난 330만㎡ 이상의 군산일반산단과 완주일반산단을 대상으로 관리기관인 시군과 함께 산업발전과 공간활용전략 등을 반영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이 추진된다. 산단 구조고도화계획이 수립되는 이들 2개 산단은 입주업체의 첨단·고부가가치화, 기반시설 확충, 근로자 생활·문화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역할 수행

이 기대된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및 혁신기술을 활용한 기존 주력산업의 대전환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 및 신산업 유치를 도모하고 글로벌 탄소중립 이슈에 맞춰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등을 활용한 친환경 산업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군산과 전주 2개 산단에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산·군산2국가산단 등 5개 산단에 132억원을 투입해 부족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등의 확보를 위한 재생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된 청년문화센터 등 7개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문화센터는 전주 제1일반산단과 익산국가산단에 50억을 투입해 건립되며 청년

들에게 창업 공간은 물론 문화·편의시설을 제공해 청년 유입과 근로자 복지환경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익산국가산단, 남원광지농공단지, 김제순동일반산단, 진안연장농공단지 등에는 43억원이 투입돼 차량 중심의 도로 환경에 특화디자인을 적용하고 근로자를 위한 쉼터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근로자에 친화적인 도로 환경이 마련된다. 이 외에도 29억을 투입해 진안연장농공단지 내 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해 창업 및 중소기업들에게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신성장산업 육성과 청년 창업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의 3단계 사업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4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노후된 농공단지 지원을 통해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최준호 기자

전북도, 전국 최초 김 육상양식 성공

플우원·국립공주대와...해양 오염 걱정 없는 연중 고품질 김 생산
 스마트 양식 기술로 미래 김 산업 패러다임 전환

전북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가 전국 최초로 김 육상양식 기술을 확보하며 연중 고품질 김 생산의 길을 활짝 열었다. 김 육상양식은 해양 오염원 차단과 질병 관리에 유리하며, 적은 면적으로도 고생산량을 자랑하는 기술이다. 단 포자를 유염으로 배양해 대형 수조에서 키우는 방식으로, 병해를 예방하며 연중 고품질 김 생산이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2022년부터 ㈜플우원과 과의 공동연구 MOU 체결을 시작으로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등 학계와 협력해 김 육상양식의 핵심 기술을 개발해 왔다. 특히, 단포자 대량 방출 유도와 안정

적 배양 기술을 연구해 기술적 난관을 해결하며 생산 기간을 기존의 1/3로 단축하고 성장률을 10배 이상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4톤 규모의 수조 4개를 활용해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했으며 대량생산 기술도 확보했다. 아울러 스마트배양기와 AI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해 배양 조건을 정밀 제어하고 자동화로 인력과 시간을 절감해 생산 단가를 낮췄다. 도는 김 가공품 개발과 대량 양식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김 육상양식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플우원, 공주대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속가능한 우량김종자생산 및 육상양식 기술개발' 국가 R&D 사업에 공모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35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김은지 기자



김관영 도지사, '민생 안정, 도민 안전관리 강화' 주문

새해 첫 간부회의서 설 명절 관련 소외계층 지원·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강조...동절기 대응 태세 유지 지시도



김관영 도지사

김관영 도지사는 13일 새해 첫 간부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도민 안전관리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설 명절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모든 도민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의료 서비스,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소비 심리 회복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도 계획대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많은 눈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일부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있는 만큼 신속하게 복구를 지원하고 앞으로도 도민들

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태세를 철저히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AI 확산 위험성이 높은 상황을 언급하며 "AI 발생 농가와 인접 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방역조치를 하고 가금농장과 취약지역 및 철새 도래지 등에 대한 소독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8일부터 중앙부처에서 업무보고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철저히 분석해, 이를 우리 도의 정책 추진에 반영해 조정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진행된 올림픽 후보지 선정 현장실사에서 평가위원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공감을 얻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니 향후 심사 일정에 철저한 대응을 해 달라"며 "도민의 공감과 지지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봄 활동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설 명절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모든 도민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의료 서비스,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설 명절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모든 도민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의료 서비스,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자치도, 청년들 지역 정착 위해 경제적 지원 나선다

월 30만원·최대 1년간 지원, 도내 3천여명 지원 예정...내달 5일까지 접수 가능

전북자치도는 도내 취업 초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1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 중소기업 등 도내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월 3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도내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분야에 6개월 이상 종사하고 ▲가구 중위 소득 180% 이하 청년(18세~39세)이며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전북도청 및 각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3일부터 내달 5일 17시까지이며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홈페이지(ttd.ezweel.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시군별로 총 3천여명을 선발하며 전주 1천329명, 군산 463명, 익산 478명, 정읍 141명, 남원 100명, 김제 109명, 완주 166명, 진안 25명, 무주 18명, 장수 29명, 임실 27명, 순창 11명, 고창 49명, 부안 55명이다. 선발은 소득수준, 활동기간, 거주기간, 나이 등 4개 심사항목에 대한 정량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이루어지며, 선정 결과는 3월 중순 선발자에게 보내는 문자 발송과 시군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에게는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도내 사업장에서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레저 등 다양한 업종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상반기 전북도 청년 인턴, 도내 37개 공공기관·기업서 인턴십 본격 시작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부터 내달 2월 14일까지 도내 37개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2025년 상반기 전북 청년 직무인턴' 인턴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 청년 직무인턴'은 도내 청년들에게 직무 체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며, 인턴십 종료 후 지역 내 공공기관과 기업으로의 구직을 독려하는 전북자치도의 대표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8일까지 진행

된 참여자 모집에서는 1,226명의 다양한 연령대 청년들이 신청했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210명이 최종 선발됐다. 평균 경쟁률은 5.8:1로, 특히 전북은행은 80명이 지원해 16: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선발된 직무인턴 210명은 작년 12월 27일 온라인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지난 3일, 8일 양일간 진행된 취업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해 인턴십 준비를 마쳤다. 이들은 13일부터 5주간 도내 37개 공공기관과 우수 중소기업에서 직무 체험을 진행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인턴십 외에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000명의 인턴을 배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북 청년들의 일경험을 지원하고 취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인턴십은 청년들이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전북 청년들이 도내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도,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1.13% 초과 달성

전북자치도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1.31%로 초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기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생산 품목의 한정성 및 품질에

대한 고정관념 등으로 매년 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 우선구매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총구매액의 1.31%를 기록하며 의무구매 비율 초과라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의무구매 비율이 1.1%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도·시군 관계자를 대상

으로 한 우선구매 컨설팅과 교육 확대, 다양한 판매행사 개최 등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8개 품목(육포, 김 등)이 도청 내 CU 편의점에 신규 입점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으로 육포와 눈꽃설화세트(떡)가 선정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및 홍보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CU 전북도청점의 입점

품목을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담례 품목에 더 많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시켜 우선구매 활성화와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도모할 방침이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연구원이남호 원장, 교육부문 청렴대상 수상

대학 경쟁력 제고·재학생 서비스 품질만족도 전국 1위 등 달성

전북대학교 제17대 총장을 역임한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이 '제5회 대한민국 청렴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부문' 대상을 받았다.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 시민운동연합(이하 '(사)공·신·연')은 지난 11일 매한 윤봉길 의사 기념관 대강당에서 '교육부문' 이남호 원장을 비롯해 8개 부문 10명의 수상자에게 시상했다. (사)공·신·연은 이남호 원장이 전북대 총장 재임 시절 도덕성과 청렴성이 뒷받침된 리더십을 무기로 가장 한국적인 대학 조성, 모험인재 양성, 약학대학 유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대학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더

불어 국제적인 대학 평가에서 국가 거점국립대학 1~2위, 재학생 서비스 품질만족도 전국 1위 등을 달성한 공로를 인정했다. 또 전북연구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전북연구원 본관동 신축예산(연건평 1천여 평의 목구조, 180억)을 확보해 연구환경 개선에 기여했고 5개 기초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제17대 전북대 총장,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사)천년전주사랑모임 이사장으로도 활동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자치도, 박항서 축구감독 명예 홍보대사 위촉

전북자치도는 13일 축구를 통해 베트남 국민 영웅으로 등극한 박항서 축구감독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박항서 감독은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베트남 축구의 전성기를 이끌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박항서 감독의 지도 하에 베트남은 2018년 아시안게임 4강 진출과 AFF 스즈키컵 우승, 2019년 AFC 아시안컵 8강 진출, 2019년 동남아시아 대회에서 금메달 획득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이뤘다. 이러한 성과는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이룬 '범포 없는 도전'의 결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정 가치인 '도전경쟁'의 정신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도는 '도전경쟁'가치를 바탕으로, 박항서 감독과 함께 전북의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활동에도 힘을 보탬 계획이다. 박 감독은 "전북특별자치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베트남과 한국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의 매력과 가능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박항서 감독의 경험과 열정이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전북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대설 시 행동요령



외출은 자제하고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산간등 고립 우려지역에는 응급의약, 비상식량등 사전에 준비하기



내집앞눈을 수시로 치우기



외출시 운동화와 보온 장갑 착용하기



스노우체인, 영화칼슘, 삽등 자동차 월동용품 준비하기



차량운행시 저속운행하고 안전거리확보하기

전주시, 장애인 자립지원 및 돌봄서비스 강화

탈시설 국한 정책 아닌, 자립 필요한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자 확대...포용적인 도시 기대

전주시가 2025년 새해를 맞아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을 안착시키고, 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과 돌봄을 돕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원대상을 기존 28명에서 40명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과 시설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

다.

시는 자립 희망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목표로 총 27호의 자립주택을 확보했으며, 일자리 연계와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각종 자립 지원 서비스 연계를 통해 현재 총 32명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올해 최종중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도 전적 행동으로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시는 만 18세 이상~65세 미만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필요도에 따라 24시간 개별형, 주간 개별형, 주간 그룹형 등 3가지 유형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전문인력을 통해 일대일로 제공한다.

시는 이러한 시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인 도시로 한걸

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과 돌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지난 2023년 시범사업 지자체 중 최초로 우수 지자체 표창을 받았으며,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도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됐다.

/김영태 기자

100여명에 희망주고 하늘의 별 된 황설매씨 중국서 한국으로...30년간 전주시 완산구에 뿌리 내려

전주에서 30년을 거주한 황설매씨가 100여 명의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전주 예수병원에서 황설매(54·여)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인체조직 기증으로 백여 명의 환자를 돕고 하늘의 천사가 돼 떠났다고 13일 밝혔다.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에서 1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난 황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머리가 아프다'며 쓰러졌다.

이후 전주 예수병원으로 이송된 황씨는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24살에 전주로 이민을 온 황씨는 30살에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이후 30년간 전주시 완산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

황씨는 평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엄마의 밤상'이라는 전주 시에서 운영하는 급식지원사업에서 근무하며 낮에는 교회 일과 봉사활동을 해왔다.

가족들은 황 씨가 "평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했다"며 "황씨의 성격이라면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기증을 선택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생명나눔을 결정해 주신 고인과 유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봉사활동에 힘쓰셨던 사랑의 온기가 널리 퍼져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

전주시, 출향·전입 청년 채용기업·청년에 장려금 지원

출향·전입 청년 정규직 채용 기업에 최대 1200만 원, 취업 청년에 최대 900만 원 지원

전주시가 청년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도 출향청년과 타지역에서 전입한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청년들의 지역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기업의 청년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올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협에 가입한 전주지역 기업으로서 상시고용인원 외에 추가로 청년을 정규적으로 채용한 기업 중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을 모집한 후, 이들 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과거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했던 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서 최근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출향)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전주시로 전입 의사가 있는 청년(전입) 중 채용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한

청년이 자격요건에 해당된다.

또, 채용약정일 전 1년 이내 전주시로 전입신고 된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는 사업 기간 동안 전주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는 자격요건을 갖춰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매월 100만 원씩 최대 1년간 채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업에 참여한 청년취업자에게도 2년 근속 시 최대 9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전주시 누리집

(www.jeonju.go.kr)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전주시 청년정책과(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8층)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오고 지역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이 찾아오는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 발전·화합 도모

13일, 정기총회...보육 발전에 기여 원장 12명에 시장 표창 수여

전주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연자)는 13일 완산구 중화산동에 소재한 한 음식점에서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은 2024년도 결산보고와 2025년도 사업 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하며 전주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참석해 그동안 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 12명에게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도 했다.

강연자 전주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은 이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 보육인이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는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신뢰받는 가정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보육인 여러분의 노력은 매우 소중하다"면서 "전주시는 보육교직원이 행복하고 더불어 아동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는 전주지역 127개 가정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가정어린이집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김영태 기자

시, '시민 안전 최우선' 수소 시내버스 상시 정밀 관리 체계 구축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2일 동안 전주지역에서 운행 중인 수소 시내버스 147대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타지역에서 발생한 수소 충전 중 폭발 사고와 관련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됐다.

시는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직후 수소 시내버스 제작사인 현대자동차 전주하이테크센터와 대책 회의를 갖고, 전문 점검반(4개조 8명)을 편성해 각 회차지와 5개 운수업체 차고지를 방문해 전국 최초로 수소 시내버스의 주요 부품과 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진행했다.

특히 점검반은 수소연료 공급라인을 집중 점검했으며, 그 결과 연료공급라인을 잇는 연결 볼트가 수소서비스 토크(조임 강도) 기준에서 아주 미세하게 풀려 있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에 점검반은 이러한 미세 누기가 발견된 17대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수소전기버스에는 총 37개의 전기제어유닛이 설치돼 있으며 그중 1개의 메인 유닛이 36개의 유닛을 통제하는데 이러한 유닛간 접촉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단순 사항이 발견된 3대의 버스에 대한 조치도 실시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수소 시내버스 대중교통 운영의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합동으로 수소 시내버스 차량 안전을 위해 점검 주기와 점검 방법 등에 관한 정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시내버스 운영 주체인 운수회사의 정비 인력의 수소서비스 정비 능력 향상을 위해 운수사 교육을 방문하거나 자동차 제작사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시 수소 시내버스 안전점검 체계 구축을 위한 전주시·운수사·제작사간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타지역 수소 시내버스 폭발 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원인 정밀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수소 시내버스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수소 수단의 탄소중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수소 시내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시, 31일까지 자동차세 일시 납부 시 4.57% 할인

위택스 앱서 신청·납부...연납 후 자동차 폐차매매하면 차액 환급

전주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 할인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한 번에 납부할 경우 4.57%의 세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규 연납 신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완산·덕진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납부 전용 가상계좌(전북·농협·국민은행)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금융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대우빌딩 7층)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도 있다.

박은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올해 연납할인율은 2.74%로 예정됐으나 작년 말 법률 개정 등을 통해 4.57%의 할인을 적용하게 돼 전년도와 동일하게 된 만큼, 조금이라도 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납제도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완산도서관, 집필활동 입주작가 모집

책의 도시 전주시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창작의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집필 공간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완산도서관 내 '자작자책 책 공작소'에서 집필활동을 할 입주작가 22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신춘문예 및 문학 매체를 통해 등단한 작가, 번역가, 기자, 집필 경험을 있는 전문작가 등 12명과 자신만의 글을 쓰는 계획 중인 예비 시민 작가 10명 총 22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된 전문작가는 1인 1실, 시민작가는 1인 1좌석을 제공받게 된다.

입주작가는 도서관 휴관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필실을 6개월간 상시 이용할 수 있다.

입주작가는 일체의 이용료를 면제받는 대신 매월 한 편의 글을 기고해야 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등 의무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시는 입주작가 선발 심사를 통해 집필 계획의 적합성과 기대성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한 후 선정할 예정이다.

내달 6일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작가는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완산도서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0-1873)로 문의하면 된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완산도서관 '자작자책 책 공작소'의 집필 공간에서 역량 있는 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이 지속되길 바란다"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한 완산도서관의 앞으로의 모습도 시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보건소, 치매 친화 문화강좌 열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13일 전주학성문화교육문화관에서 치매환자 가족 등 115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한 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김보영 마음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부장이 강사로 초청돼 '치매 예방 교육'을 주제로 ▲치매의 정의, 종류, 증상 등을 안내했다.

특히 치매환자 가족과 만 60세 이상 노

인 일자리 참여자 등이 대거 참여한 이날 강연은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치매의 증상과 예방 방법 등을 배우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치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윤석열퇴진 전북본부, 조배숙 의원 고발

"내란수괴 영장 집행 가로막아...도민 민심 배반, 국회의원 자격 없어"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호남 류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6선)을 내란 선동,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13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배숙 의원은 앞장서서 내란수괴인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오래전부터 가까운 참모들과 함께 계엄을 준비했고 실제 계엄을 실행해 국민들에게 총부리

를 겨누는 명실상부한 내란수괴"라며 "하지만 지난 6일 오전 조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국회의원 45명은 한남동 관저로 집결해 윤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윤석열을 변호하고 체포를 방해하고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하지 않나' 등의 발언을 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거스르고 전북도민의 민심을 배반한 조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관 기자

道,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영세 농식품기업 경영 애로 해소 중점 맞춤형 지원...이달 13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접수

스마트 HACCP 도입 등 3개 분야 총 19억원 투입, 생산성 및 안전성 강화·인력난 해결

전북자치도가 도내 농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도내 농업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영세 농식품기업의 인력난과 경영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신청 자격을 충족

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식품기업은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농식품기업 스마트 HACCP 지원사업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1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HACCP 지원사업'은 기존의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대신 중

요한 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 자동화 설비 지원을 포함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협력 컨설팅도 병행해 참여 기업의 식품 안전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도는 시군을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한 뒤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2월 중 선정 결과를 각 시군을 통해 통보할 계획이다.

공모 안내문은 도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도 농식품산업과(063-280-3261) 또는 각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모가 도내 농식품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식품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해도 할인을 확대

올해부터 구매해도 최대 1백만원, 할인을 최대 20%

전북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수 부진과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해도와 할인율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평소보다 2배 확대한 1천845억 원(평균 9백36억원)의 발행규모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을 타개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1월 31일까지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월 구매한도를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확대하고 할인율을 최대 10%에서 20%까지 상향 조정해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일부 시군에서는 부정 유통에 취약하고 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되는 지류형 상품권은 종전과 같이 10% 할인, 최대 30만원으로 유지되며 구매는 해당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충전한다. 특별할인 기간, 가맹점 현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본예산에 편성된 73억을 시군에 보내 신속 집행할 예정이며 추경예산에 50억을 추가 편성, 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회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일부 시군에서는 부정 유통에 취약하고 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최준호 기자

민관 연구 협력, 식량작물 '특의식' 소재화 속도 낸다

농촌진흥청, 대상웰라이프(주)와 기술 교류 및 연구 MOU...국산 식량작물 특수이료용도식품 산업 소재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식량과학원과 대상웰라이프(주)(대표이사 서훈교)는 13일 대상이노파크 서울 연구소에서 특수이료용도식품(특의식) 소재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의식은 건강상의 이유로 식생활 개선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제조한 식품으로 '메디컬 푸드(medical food, 메디푸드)'라고도 불린다.

앞으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상호 기술지원과 자문, 관련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해 국산 식량작물을 이용한 특의식 산업 소재화에 힘을 기울인다.

참석자들은 업무협약에 앞서 진행된 설명회(심포지엄)에서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도담쌀', '쌀유산발효물' 등 특의식 소재와 근력, 뼈 건강 개선 등 건강기능식품 소재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산업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13일 대상웰라이프(주)와 국산 식량작물 특의식 소재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양대학교, 충북대학교와 공동 연구로 당뇨병과 고혈압 예방 효능이 있는 국산 잡곡 최적 혼합비율을 설정, 산업재산권을 확보한 바 있다.

대상웰라이프(주)는 '항고혈압용 잡곡 혼합물'에 대한 기술을 이전받아 2024년 4월 국내 최초 고혈압 환자용 영양조제 식품(음료)을 출시했다.

한편, 최근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특의식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의 수요가 늘면서 특의식 국내 생산 규모는 2017년 442억 원에서 2023년 1,914억 원으로 4배 이상 성장했다.

대상웰라이프(주) 서훈교 대표는 "앞으로도 식이 관리가 필요한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을 위해 소재 연구와 제품 개발을 지속할 예정이다. 질관별 맞춤형 제품으로 많은 사람이 더욱 간편하게 식습관을 관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과도연 원장은 "국산 식량작물이 다양한 산업 소재로 활용돼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고 민관 연구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최준호 기자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 첫 추진...중대재해 사전 예방 기대

농촌진흥청, 농작업안전관리자 선발·육성 계획...경기, 충남, 경북, 경남 지역에서 4월부터 지원 예정

올해부터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현장을 방문해 농작업별 위험성을 평가한 후 맞춤형 전문 상담을 무료 제공하는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컨설팅)'이 처음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이를 위해 4개도 농업기술원(경기, 충남, 경북, 경남)과 협력해 올해 농작업안전관리자 40명을 선발·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경영주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한 농작업 일터 조성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컨설팅)은 오는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경기(용인, 평택, 광주, 여주, 양평) △충남(천안, 아산, 보령, 당진, 금산) △경북(영천, 상주, 경산, 예천, 영양) △경남(진주, 밀양, 양산, 함안, 함양) 4개도, 20개 시군에서 시범 추진된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농로·도로 등 위험 사항



농촌진흥청은 '2025년 농작업 안전재해예방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4월부터 전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확인 및 조치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기계, 농자재 등에 대한 위험요인 사전 점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가스 및 농약사용 등에 따른 위험도 측정 △주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방법 안내 및 개인보호구 활용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컨설팅)을 원하는 농업경영주는 사업 시행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농업경영주는 농업인안전 보호가입 대상자(가입자 포함)로서 5인 내의 농작

업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농작업 종사자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최근 5년간(2019~2023)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안전 재해율은 평균 6.0%로 나타났다.

매년 5만 4,000명, 매일 150명의 농업인이 안전재해를 입은 셈이다.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보건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안전보건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 특성에 맞춰 전문 상담(컨설팅)을 함으로써 안전 실천 문화 확산과 농작업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현행 농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기반이 더욱 공고해지고, 나아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주)창해에탄을, 백미 기부 및 결연 봉사활동 실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13일 (주)창해에탄을(대표이사 이연희)이 기부한 백미를 전주 시 관내 희망봉사대와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에 직접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창해에탄을 임·직원 25명을 비롯한 봉사원, RCY 등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쌀소비 촉진 및 농가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기부자가 직접 배부 봉사활동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연희 대표이사는 "임직원 모두가

함심해 직접 취약계층 맥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해 더 뜻깊다"라며, "쌀을 받아보시고 활짝 웃으시는 어르신들을 보고 매우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창해에탄을은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도내 유망 중소기업으로 고품질의 주정(발효에탄을)과 바이오소재를 생산하는 선도 기업이다. 매년 지역사회에 살고 연탄 나눔 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명절맞이 은누리상품권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JB전북은행, 새해맞이 특판적금 출시 및 이벤트 진행

3월까지 판매...12개월 최고 연 3.60% 금리 제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새해를 맞아 이벤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25년 잘되길 바라요! 특판적금' 출시와 함께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늘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판매하는 이번 특판 적금은 12개월에 최고 연 3.60%(기본 3.20%)금리가 제공되며 총 판매한도 10,000좌로 판매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계약월 1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전북은행 계좌간 자동이체를 통해 계약기간 1/2 이상 납입 시 연 0.20%, 가입 시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면 연 0.2% 등 최고 연 0.40%가 제공된다.

동일 기간에 진행되는 출시 이벤트는 특판적금 가입 시 전북은행 인출금 통장에서 자동이체 월 10만원 이상 신청 출시와 함께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늘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판매하는 이번 특판 적금은 12개월에 최고 연 3.60%(기본 3.20%)금리가 제공되며 총 판매한도 10,000좌로 판매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계약월 1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전북은행 계좌간 자동이체를 통해 계약기간 1/2 이상 납입 시 연 0.20%, 가입 시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면 연 0.2% 등 최고 연 0.40%가 제공된다.

/최준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설 명절 대비 수입 축산물 이력 관리 집중 단속

위반 의심 영업장 중점 점검...축산물 거래신고·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 단속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경희, 검역본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수입 이력관리 미흡할 우려가 있어 8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업체(소)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예: 정육점),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영업장(예: 식당) 및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 등이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설 명절 대비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

래 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가중 및 축산물 이력관리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인지 여부를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서 직접 제품의 원산지 정보, 수입 이력, 유통경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회 이상 상습 위반업체(소)는 공표하고 있으며

로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수입 축산물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력 관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서 소비자들이 쇠고기, 돼지고기 구매 시 수입산 축산물 여부를 확인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교육청, 위기학생 정신건강 지원 강화

2025년 위기학생 지원 계획 수립... 심리·정서적 고위기 및 자해 학생 예방 및 대응력 높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위기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심리·정서적 위기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2025년 위기학생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특히 단위학교, 교육지원청과 함께 위기관리 통합 안정망 지원체계를 구축해 심리·정서적 고위기 및 자해(살) 학생 예방 및 대응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자살(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연 6차시 이상 생명존중 교육(사회정서교육)을 실시한다. 학부모 및 교원 대상으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마음건강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학생의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대응하기 위한 교원 대상 연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 내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학생 정신건강 관리 역량 증진을 위해 마음치유·생명지킴 운영 학교를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우울, 불안 등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는 정신건강학과 상담·치료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신건강 문제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는 상담·진단·치료가 가능한 병원형위(Wee)센터 2개 기관을 지속 운영한다. 아울러 전북교육청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 2개 기관(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을 운영하고,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이들 통해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도서관, 신년 맞아 잇단 명사특강

15일 경희대 안병진 교수, 16일 소설 인프라테크 전명산 대표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설동훈)이 2025년 새해를 맞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특별 강좌 '신년 특강, 명사를 만나다'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중앙도서관 1층 중도라운지 강연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새해를 여는 지식의 장이 될 전망이다. 첫 강연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경희대학교 안병진 교수가 연사로 나선다. 안 교수는 강연에서 '트럼프 2기와 전환기 한국 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제 이론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 자유주의 헌정주의 민주주의의 위기,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정책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어 오는 16일 오후 2시에는 블



록체인 전문가인 전명산 소설 인프라테크 대표가 '비트코인, 블록체인 그리고 글로벌 경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전북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dl.jbnu.ac.kr)에서 사전 접수하면 된다. 모든 강연은 무료다. /최성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만전'

현업업무중상사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진행... 산업재해 예방·산업 안전 보건·학교 안전사고 사례 등

전북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속기관 및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업업무중상사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1차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현업업무중상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인식을 제고하고 중대 재해 및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이 교육은 이남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인원은 조리실무 723명, 시설관리 182명, 운전 59명, 통학버스안전지도사 35명, 미화 157명, 경비 61명 등이다.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주요 내용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 꼭 알아야 할 산업 안전 보건 ▲ 직무스트레스 관리 ▲ 올바른 작업 자세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 학교 안전사고 사례 ▲ 건강관리를 위한 올바른 환기 ▲ 한랭질환 예방 및 대처 방안 등이다. 특히 현업업무중상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으며, 교육 장소도 8권역으로 확대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지역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북지역 방송통신중학교 75명, 방송통신고등학교 103명 등 총 178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전주덕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 지원 자격은 ▲초등학교 졸업 및 동등 학력 소지자로 의무교육을 면제받은 만 19세 이상인자 ▲초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초등학교 해당 학력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이다. 전형방법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전북 지역 주민등록등본 등재자로 연장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이뤄진다. 원서접수는 오는 2월 7일까지이며, 전

주덕일중학교 4층 교무실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입학원서, 초등학교 졸업증서 또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사본 1부, 여권용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등이다. 전주중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와 전주여자중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는 오는 2월 14일까지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자격은 ▲중학교 졸업자 및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 ▲중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학교 해당 학력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책임교육 실현 역량 키운다

전북서 2025년 7개 시·도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공동 직무연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 직무연수를 지난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개최한다. 이 연수에는 전북을 포함한 7개 시·도

(경남, 광주, 부산, 울산, 전남, 제주)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총 267명이 참여한다. 지난 2016년 전북을 시작으로 7개 시·도가 차례로 개최한 후 7년 만에 다시 전북에서 이뤄지는 연수다. 연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학교 및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정책기획 및 컨설팅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정책을 추진해야 할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정책기획 및 보고서 작성 등 실질적 업무 역량을

'CES 2025' 전주대 지원 회사 지어랩 참가... 혁신기술 선보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5(국제전자제품전시회) 내 전북 LINC 공동관에 전주대학교 가족회사인 지어랩(대표 정종민)이 참가해 혁신 기술 기반의 제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전시는 전주대와 전북대, 원광대, 우석대 등 전북 도내 4개 대학 연합으로 전북 LINC 공동관을 구

성해 진행했으며 CES 전시회의 스타트업 전용 전시장인 유레카파크(Eureka Park)에 대학별 혁신 기술 기반 제품이 전시됐다. 전주대는 LINC 3.0 사업단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가족회사 지어랩이 전시에 참가했으며, 결정화 공법을 활용한 고부가 이온물질 및 희소금속을 유가자원으로 회수하는 혁신기술을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 '제1차 완주군 지역 산학 융합 아카데미'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지산학연기반의 지역인재 양성 및 공유 협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1차 완주군 지역 산학 융합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열린 아카데미는 우석대학교 교육발전지원센터(센터장 김전홍)가 주관한 가운데 수소에너지고(전북하이테크) 졸업생과 완주군 산업단지내 근



무하는 주요 기업 근로자 등 70명이 참석했다. 아카데미는 지역 맞춤형 글로벌 인재양성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완주군 교육발전특구 사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아카데미는 완주군 교육발전특구 추진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

고,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완주군의 특화된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인재 양성과 공유 협업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성민 기자

순창군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기부제로 전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기부한도 : 연간 최대 2,000만원)

기부방법

- 대면납부 : 농협은행 방문신청(전국 농축협 어디나 가능, 단위농협 포함)

신분증 지참	>	기탁서 작성	>	기부(현금 또는 카드)	>	답례품 선택 및 배송
--------	---	--------	---	--------------	---	-------------
- 인터넷 납부(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기부자 인증 (가주지·한도 확인)	>	기부금 결제 (계좌이체·신용카드 등)	>	답례품 선택 (기부액의 30%)	>	답례품 배송 (배송지 선택, 배송내역 조회)
-----------------------	---	-------------------------	---	----------------------	---	-----------------------------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 답례품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물 등 제공 ※순창고추장, 장내미생물검사키트, 벌초대행서비스 이용권 등

기부금 사용처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지사업에 사용

기부문의 | 순창군청 인구정책과 ☎ 063)650-1592



익산시, 치매안심가맹점 현장 관리 진행

익산시가 치매안심가맹점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치매안심환경을 강화한다. 익산시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16일까지 치매안심가맹점 5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관리를 진행한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고 올바른 치매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이번 현장 관리를 통해 홍보물 비치 여부와 가맹점 현관 관리 사항 등을 점검하고, 치매극복 활동을 위한 사업장의 의견을 청취해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안심가맹점 유지 여부, 현관 재부착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 치매안심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익산시치매안심센터(063-859-7550)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국립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청소년 치유·재활 국립 시설... 2027년 개관 목표 · 상반기 내 착공 계획

익산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이 올해 첫 삽을 뜬다. 익산시는 청소년디딤센터 공사비 일부와 감리 비용 등 예산 37억 원을 확보하면서, 상반기 내로 건립 공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합열을 외리에 동자를 뜨는 '청소년 디딤센터'는 청소년 치유·재활 국립 시설이다. 2027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 국립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조감도

시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2022년 기초 조사, 2023년 환경 조사 및 설계 착공,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 결정 등 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건립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20억 원으로, 지난해까지 보상금과 설계 용역비로 16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는 2025년 공사비 일부와 감리비로 37억 원을 확보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건립 공사에 돌입한다. 디딤센터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ADHD)이나 우울,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만 9~18세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시설이다. 상담부터 정신의학적 진료, 대안교육, 생활보호, 진로탐색, 체험활동 등 통합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학교와 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실제 지난 2년 간 디딤센터 치유과정 참가자들의 사전·사후 심리검사 결과 각종 위험 요인이 감소하고, 긍정 지수가 증가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일상생활 속 회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디딤센터는 경기도와 대구에 각 1개소씩 있는만큼, 호남권 청소년은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실정이다. 시는 전문적인 치료·재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익산에 국립형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가 설립되면 지역 청소년에게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대학생 행정연수 발대식 개최

총 144명 선정... 시청 · 공공기관 행정업무 체험

익산시가 방학을 맞은 대학생의 사회경험 기회 확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지난 13일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연수 발대식을 개최하고 학생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시는 발대식에서 행정연수에 참여하는 대학생 144명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와 유의 사항 등을 전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4주간 다양한 행정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대학생 행정연수 사업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대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시청과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직무 체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 창출을 통해 학비 마련 등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매년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올해도 150명 선발에 531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매회 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의 96% 이상이 만족하는 등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의회, 2025년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올해 사자성어 '대공무사'... 시민을 향해 더 들고 더 댈 것이다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지난 13일 2025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2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조례안 13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7건으로, ▲익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중선 의원), ▲익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한동연 의원), ▲익산시 숲길 관리 조례안(김순덕 의원 외 2), ▲익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조남석 의원 외 2) 등이 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오임선 의원 -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익산시의 예산 변경 집행 실태 ▶김순덕 의원 - 익산시 식품관광

산업도시로 도약을 위한 집중화 전략 필요성 ▶조남석 의원 - 용동면 고창마을 내 상습침수지역 해결 방안 마련 촉구 ▶손진영 의원 - 동부시장 재건축 지연 문제 및 생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경진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시청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중요한 회기"라면서 "올해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들의 입장에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올해 사자성어로 '배우 공경하여 사사무용이 없다'는 의미의 '대공무사(大公無私)'를 선정했다. 익산시의회 의원들은 언제나 시민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더 들고 더 댈 것이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 공급업체 모집

모집 분야 · 농축수산물 · 가공식품 · 식품 외 제조상품 · 관광체험 · 유무형 서비스

군산시는 지난 13일 '2025년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군산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체로, 모집 분야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식품 외 제조상품, 관광체험 및 유무형 서비스 분야이다.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군산시청 고향사랑기부제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군산시 대표 답례품으로는 쌀,

보리, 농산물꾸러미, 박대, 꽃게장, 장아찌 등으로 19개 품목 2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군산시민의 매력 있는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여 기부자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업체는 의미 있는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주소지가 군산이 아닌 개인이 군산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연간 20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와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청년 참여포인트 제도' 시행

청년 시정 참여 유도... 시정 활동 참여 시 포인트 적립 · 지역화폐 환산 지급

정읍시가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 참여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 '청년 참여포인트 제도'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18~45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이 시정 활동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환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시정 관심도와 지역 정착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활동에는 ▲SNS를 통한 시정 홍보 ▲시 주관 행사 및 교육 참여 ▲관광지 방문 등이 있으며 1회당 최소 1000포인트에서 최대 1만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매월 1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가입 희망자는 최초 1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신청서를 시청 일차

리경제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시정참여를 증빙하는 적립신청서를 활동 당일 말까지 동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부터 추천인 포인트 부여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항목별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공무원·시민들께 제설작업 감사"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7일~10일 까지 내린 폭설 속에서 24시간 제설작업에 참여한 전 직원과 시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강 시장은 지난 13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3일 동안 20cm에 가까운 폭설이 내려 도로 통행등의 불편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시청과 읍면동 전 직원이 제설작업에 전력투구해 적설 전 빠르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의 폭설 피해를 막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서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시장은 공직사회의 혁신과 시민 서비스 제공에 더욱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우리가 1시간 노력하면, 시민들은 2시간 편할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부서를 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임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국과장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새해에는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역할을 충분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공익직불금 129억 지급... 농업인 지원 강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읍시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나선다. 총 129억 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 다. 시는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당초 109억원에서 20억원을 증액한 총 129억 원 규모로 상향해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업·농촌을 지키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지급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농가 약 1만 3450여 명으로 지난 13일부

터 지급을 시작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109억원은 1월 중 지급 완료될 예정이며,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로 20억원의 시비 직불금이 5월에 지급된다. 시비 직불금은 논·밭 구분 없이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으로, 시 자체 재원에서 마련됐다. 도내 농지 합산 0.1ha 이상 최대 3ha까지 지원되며 농업인의 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2025년 등록면허세 5억 2000만 원 부과

정읍시가 2025년 등록면허세(면허분) 5억 2000여만원을 부과하며 시민들에게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읍시로부터 각종 면허 및 인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올해는 총 2만 7000여 건의 고지서가 지난 10일 발송됐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자료(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전용 가상계좌 ▲전자 납부 번호이체 ▲ARS(142-211) ▲은행 현금인출기(ATM/CD)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시는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국제청에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장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인허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올해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정과 부과팀(539-5262)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연납 시 4.58% 할인혜택

군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2025년 공제율은 2024년과 동일한 4.58%로 유지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3.6,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들어 1월에 신청해야 최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서 전년도에 연납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차량변경이 없는 한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할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은 환급되며, 이전 등록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군산시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454-2400) 또는 스마트위택스 및 자동응답시스템(142-211)으로 신청 가능하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운영... 주택 구입 자금·전세보증금 지원

익산시가 올해도 전국 최대 규모의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를 연중 모집하며,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보증금으로 나눠 진행된다.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 론(Loan), 신생아 특례 대출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이자를 반기별로 현금 지원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4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19~39세 익산 거주

청년은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에서 연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이후 혼인하거나 익산으로 전입한 신혼부부와 청년은 대출 잔액 2억 원 한도에서 연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며, 이자 지원율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원기간은 기본 3년으로 자녀 수 증가에 따라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19~39세 이하 청년이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보증금 3억 원 이하

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익산시와 협약을 맺은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를 최대 3%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90% 이내로 신혼부부는 최대 2억 원, 청년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지원 금액은 연 최대 신혼부부는 600만 원, 청년은 300만 원으로 시가 은행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2년마다 신청을 하면 6년까지 연장되고,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익산시청 콜센터(1577-0072), 주택과(063-859-5541, 5558)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군, 설 명절 종합대책 적극 추진

권익현 부안군수, “재난·재해·교통·환경정비 등 꼼꼼히”...성과 중심 용역도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설 명절 종합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1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30일 설 연휴까지 6일은 쉬 수 있게 됐다”며 “연휴가 길어진 만큼 군민과 귀성객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재난·재해관리, 교통대책, 환경정비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 온기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 종합대책을 꼼꼼하게 수립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명절을 맞아 부안을 방문하는 귀향객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팸플릿 등을 마련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올해 업무가 시작되면서 각 사업별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며 “용역은 사업 성공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인 만큼 사업추진을 위해 구체적 실행계획과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형식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용역에서 벗어나 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주민소통창구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권익위 조사관·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8명 참여해 생활 속 고충 상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협업기관 분야별 상담반(20명 내외)이 지자체 상담장에서 직접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 및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처리해주는 국민 소통 창구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

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사회복지협의회 등 18명이 참여해 행정, 문화, 교육, 복지,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등 생활 속 각종 고충 불편을 상담할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민사, 형사 등 생활법률 분야를 상담해주고,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휴대전화 구매, 인터넷 상품가입 등 소비자 피해구제 등 불만사항을 처리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지적 관련 분쟁을 상담해 준다. 또, 서민금융 진흥원에서는 취약계층

의 금융을 상담해 주고, 복지 사각지대의 비수급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민간복지지원을 연계해 지원해 줄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17일 시청 3층 대회의실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주민들이 금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생활 속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윤봉기 기자

고창군, 신규 이장단과 ‘청렴 고창’ 의지 실천

심덕섭 고창군수, 547명 신규 이장단들과 ‘청렴도 1등급’ 자긍심 높인다

고창군 각 마을에서 활동하는 574명의 신규 이장들이 반부패 청렴을 다짐했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문화회 전당에서 ‘신규이장단 청렴서약식’을 열었다. 서약식에는 올해 신규 이장으로 선출된 574명이 참여했다. 고창군 이장단 연합회는 고창군수와 함께 지역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과 반부패 노력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낭독한 뒤 고창군에 전달했다. 또한 ▲부패예방 ▲부당이익 추구 금지 ▲청렴의 가치 공유 및 실천 등 지역사회 모두가 청렴한 고창군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특히 ‘전북 유일 2024년 종합청렴도 1등급’에 빛나는 성과를 공유했다. 앞서 민선 8기 고창군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고창 실현’을 목표로 심덕섭 군수를 중심으로 강력한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한 뒤 청렴 시책 추진 동력



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 후 이를 충실히 이행해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1등급을 달성한 만큼 앞으로 청렴도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청렴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농기센터, 폭설·한파에 전직원 일제출장

고창군이 폭설과 한파에 따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직원 일제출장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창 지역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평균 25cm(최고 성내면 35.5cm)의 눈적설을 기록하며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해가림 시설 등의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인 대설피해 예방 SMS 발송 ▲겨울철 대설피해 예방 현장 지도 ▲농업기상재해 대응 조기경보서비스 가입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등 겨울철 재해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대설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농업인학습단체 및 품목별연구



모임 등 단체 카톡방을 활용해 기상정보와 피해예방 대비를 홍보했다. 대설 이후 피해 상황 점검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직원 읍면현장 출장을 실시해 피해상황 점검과 농업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예방지도를 실시한다. 현행열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소중한 농업재산과 농작물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정병갑 서예가, 신림면에 작품기증

“후배 공직자들, 청렴한 자세와 의로운 마음가짐 되새기길”

고창군 정병갑(전 고창군 산업경제과장, 전 신림면장) 서예가가 지난 10일 신림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자신의 서예 작품을 기증했다. 작품명은 ‘경리사’다.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라는 뜻으로, 공직자가 청렴과 올바른 자세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병갑 서예가는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했으며, 퇴직 후 광주광역시에서 학생 이돈홍 선생 문하에 입문해 본격적으로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등 5체의 서체를 익히며 고금 명가들의 서법을 연마했다. 그는 제4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 부문에서 특선으로 선정되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로 이름을 올렸고, 국내 다수의 서예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정병갑 서예가는 자신의 호를 ‘덕천(德泉)’이라 해 “덕(德)은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그의 작품들 또한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증식에서 정병갑 서예가는 “신림면은 제게 있어 공직자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실천했던 소중한 곳이다. 이 작품이 후배 공직자들에게 청렴한 자세와 의로운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 신입생 20명 모집

고창군이 지난 10일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2025학년도 농생명과학과’ 신입생 20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대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는 산업체와 대학이 협약해 운영하는 계약학과로, 정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신입생 모집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한 학력을 갖추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및 종사자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확대했다. 이전에는 ‘산업체 재직자’로 한정돼 농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고창군은 농생명과학과 고창캠퍼스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학생으로서의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졸업 시에는 전북대학교 농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모집기간은 내달 5일까지이며, 원서접수는 입학원서 등 필요서류를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미래 농생명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 활용, 데이터 기반 농업 등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31일까지

부안군에서 올해 1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연납 신청은 1월(4.58%), 3월(3.76%), 6월(2.51%), 9월(2.5%) 연중 네 차례 가능하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이 환급된다. 신청 방법은 부안군청 재무과 세정팀이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고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 절감 혜택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많은 군민이 신청해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해경, 조정면허 PC시험 운영 방안 개선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2025년부터 조정면허시험을 경찰서 1층 조정면허 PC시험장에서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의 시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 시험장 대비 응시인원은 적은 반면, 운영일과 운영 횟수가 많아 당일 응시자가 1명뿐인 경우도 빈번히 발생해 비효율적인 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안해경은 응시 현황을 분석해 응시 인원이 집중되는

요일을 파악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시험일로 지정했다. 또한 도서 지역 주민들의 여객선 시간 등 교통편의를 고려해 오전 10시와 오후 4시로 조정했다. 서영교 서장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면허 PC시험 시간을 재 편성했다”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조정면허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농업용드론·소형특수농기계 자격 취득 교육

농업 기계화를 높이고, 사고율 낮춰 경영 도움 기대

고창군이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드론 및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지원자를 모집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으로 소형농기계와 농업용 드론의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조작 미숙 등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두 교육 모두 모집 대상은 3년 이상 고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에 종사한 지역 농업인으로 운전면허 소지자이거나 신체검사증명 소지자면 누구

나 신청이 가능하다. 가까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두 교육 중 1개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군은 소형특수농기계는 150명에게 1인 교육비 40만원, 농업용 드론은 32명에게 1인 교육비 220만원을 기준으로 50%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한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자격 취득 지원을 통해 농업 기계화를 높이고 농기계 사고율은 낮추어 농업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진봉면, 신임 이장·반장 임명장 수여식

2025년 새해 첫 이장회의 통해 역할 다져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2층 회의실에서 을사년 첫 이장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설 2025년 신임 이장 및 반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나인권 도의원, 오승경 안전개발위원장, 이병철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봉면장으로 취임한 유석 면장이 마을별 주민총회를 통해 신임 이장과 반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유석 면장은 취임사를 통해 “태어

나고 자란 고향인 진봉면에 면장으로 부임하게 돼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특히, 이번 신임 이장·반장님들과 같이 임기를 시작하며 활기차고 따뜻한 진봉을 위한 결의를 함께 다질 수 있어 행운이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전철한 민원 응대와 면민들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행정을 통해 지역개발과 면정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윤봉기 기자

부안군,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최대 360만원 지원

부안군은 2025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내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의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36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부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세~39세 청년으로 농업·임업·어업·문화예술·중소기업·연구수업 중 한 분야에 6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야 한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내달 5일 오후 5시까지이며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사이트(ttdezewel.com)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월 30만원씩 1년간 신용(체크)카드와 연계한 포인트가 지급되며 해당 지원금은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레저 등 도내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김연희 지역경제과장은 “많은 청년들이 신청해 지원받기를 바란다”며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순창군,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풍성'

체험비·숙박비·단체 관광 지원...관광산업 활성화 총력 학생 단체 현장학습 지원 확대, 코레일 연계로 교통 편의 증대

순창군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5년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순창군 관광진흥 조례를 근거로, 개별 여행객부터 단체 관광객까지 다양한 관광 수요를 겨냥한 맞춤형 지원책을 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업은 개별 관광객을 위한 체험비와 숙박비 지원이다. 2인 이상 관광객이 순창군의 농촌체험시설에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체험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숙박의 경우에도 관내 숙박시설 이용 시 1박당 1인 1만원까지 실제 숙박비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단체 관광객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됐다. 20인 이상 단체가 순창군의 유료·무료 관광지를 각각 1개소 이상 방문하고 관내 식당에서 식사할 경우, 버스 1



순창군이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5년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당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계를 겨냥한 지원책도 눈에 띈다. 관외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단체에게도 버스 1대당

3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순창 인근 기차역에서 순창까지의 버스를 지원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사랑 명예의 전당' 조성...나눔의 가치 기려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명·단체명 현액판에 새겨 보존

남원시가 고향사랑기부제와 훈항장학재단 후원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 기부자들의 고귀한 뜻을 명예의 전당에서 기리기 위해 '남원 사랑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고 그 역사적인 시작을 기념하는 제막식을 13일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며 남원에 뜻깊은 후원을 지속해 온 기부자 20여명을 초청해 기념식, 명판식이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를 찾은 한 기부자는 "기부금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에 잘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고향 남원을 위해 꾸준히 힘을 보태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는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한 기부자의 이름 또는 기관·단체 명칭을 황금빛 현액판에 새겨 보존할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군민안전보험' 안전망 강화...22개 항목 보장

군민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외국인 주민 포함...자연·사회재난 사고 시 지원

완주군이 별도의 보험가입 없이도 군민들이 자연·사회재난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일 완주군은 지난 2015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 자연·사회재난 등 22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만 26건의 피해를 입은 완주군민이 8,000여 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보장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 ▲일반상해(교통사고 제외)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

해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화상 수술비 지원이다.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 주민도 포함된다. 다른 보험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사망의 경우에는 상해 제 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및 심신상실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

비서류 등을 갖춰 군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에 신청하면 된다.

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 창을 활용하면 공제혜택, 신청서류, 약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삶을 보호하는 제도로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유익의식 의장 "2025년 완-전 통합논란 종식하겠다"

완주군의회의장 유익의(사)가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간의 일정으로 제 290회 임시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완주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유익의 의장은 개회사에서 헌법 제1조의 '권력'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헌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2025년 완주군의회의는 지름길을 취하지 않고, 큰길로 간다는 뜻의 '행불유

경(行不由徑)'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유 의장은 "2025년도에는 무엇보다 완주전주통합 논란을 반드시 종식시키고, 완주의 혁명과 승리를 역사에 기록하겠다"며 "완주군민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완주, 주민자치 1번지, 경제도시 1번지를 완성하는 한 해를 만들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문을 여는 2025년이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전하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스마트 곤충산업 심포지엄 성료...민·관·학 참여

지난 9일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스마트 곤충산업 개발과 제품화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북대 농축산식품융합학과를 주관으로 식물학, 스마트팜학과, 식품공학과 등 관련 학과와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양잠산업과, 한국식품연구원, 남원시청 축산과,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 곤충산업센터 등 관계자 및 곤충산업 관련 업체인 코리아소프트㈜, ㈜휴농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스마트 곤충사육 시스템 개발 및 제품화 가능성 연구'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곤충 대량 사육 및 산업화를 위한 사육-제품화 공정과 안전성 확보와 종충·먹이 사육 방법·가공 방법·저장 기술 등의 개발과 표준화의 필요성, 소비자 인식 개선과 홍보마케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 곤충산업 거점 단지 추진 현황 공유, 갈색



지난 9일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스마트 곤충산업 개발과 제품화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거저리 품종 육성 연구 성과, 스마트팜 기술 소개 및 스마트팜 데이터를 활용한 탄소 감소 효과, 곤충 단백질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연구 등 유익한 내용들이 발표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곤충산업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전북대 이하고 교수는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는 과정은 많은 위험성이 존재해 기업체가 시장에 뛰어드는 데 많

은 부담이 있다. 기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심포지엄이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국립농업과학원 변영웅 곤충양잠산업과장은 "뜻깊은 자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례화해 민·관·학이 함께 문체 산업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남원시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전북청년청년수당인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5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00명이며, 자격 요건은 농업·임업·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등 지역 산업에 6개월 이상 종사한 18~39세 청년으로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80%(1인 기준 4,012,000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총 360만원의 지원금이 신

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되며,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등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월 13일부터 2월 5일 17시까지이며,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홈페이지(ttd.ezweel.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추진으로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농촌 주거환경 개선...빈집정비 등 3개 사업 추진

순창군이 2025년도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약 5억 6,700만원을 투입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의 '빈집·행랑채 철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올해부터 새롭게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사업'과 '행랑채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사업인 빈집·행랑채 철거 지원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지원한다. 빈집 철거는 일반 가

옥 300만원, 슬레이트 지붕 가옥 400만 원을 지원하며, 행랑채 철거는 일반 가옥 120만원, 슬레이트 지붕 가옥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농촌빈집 45호와 행랑채 40호 등 총 85호의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도입되는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지붕 재료와 관계없이 군 관내 농촌주택 50호를 대상으로 한다. 각 가구당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행랑채 빈집정비사업은 군에서

직접 철거공사를 시행하며, 호당 700만 원 규모로 10호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특징은 철거 후 빈 부지를 텃밭이나 주차장 등 공공용 부지로 3년간 활용한다는 점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순창군은 서류 심사과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10개 유소년축구팀 동계훈련...지역상가 '들썩'

완주군이 동절기 전지훈련 선수들로 북적이고 있다.

13일 완주군은 전국의 유소년 축구팀 10곳이 완주군을 찾아 동계 전지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500명 이상의 유소년 축구선수, 코치진들이 완주군을 찾아 약 2주간 일정으로 훈련에 돌입,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완주에 머무르는 동안 모든 체제비를 관내에서 소비하고, 주말에는 학부모들이 방문해 경기장 주변

식당, 카페, 숙박업소를 이용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군은 이번 전지훈련 유치로 1,000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분석, 경제 파급효과는 5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완주군에서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전국 승마대회, 국제 유청소년테니스대회, 만경강 전국파크골프대회 등 다양한 종목의 대회를 유치하며 스포츠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산림조합, 곳곳에서 홍보관 운영...산림사업 등 안내

완주군산림조합(조합장 임필환)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10회 완주곶감 축제에서 산림조합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번 홍보관은 완주군산림조합이 지난해 11월 SJ산림문화복합센터를 개청하고 맞은 첫 축제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

홍보관은 산림경영지도 컨설팅과 임업정책자금 안내, 산주 및 임업인에 정보제공했으며 산림조합(조합원가입 등)과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홍보해 방문객들이 사육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기회가 됐다. 더불어 완주곶감을 맛볼 수 있게 시식용 곶감을 나눠주며 새해 소망을 적어 주는 캘리그래피 행사도 함께해 방문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임필환 완주군산림조합장은 "완주행정복합단지에 개청한 SJ산림문화복합센터를 거점으로 산주 및 임업인들에게 함께하는 동반자 완주군산림조합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군민 화합·발전 기원' 초찬기도회 열려

순창군기독교연합회(회장 권재주 성동교회 목사)가 2025년 새해를 맞아 13일 아침 9시 30분 회의실에서 '행복한 순창을 위한 초찬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군수, 읍면교회 목사들과 장로, 군 간부공무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기도회는 목사기도를 시작으로 기육종 목사, 김중욱 목사의 나라와 민족, 순창군 발전과 평안을 위한 특별기도, 이음식 목사의 축도를 함께하며 나라와 국민, 순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녕, 군민화합을 기원했다. 최영일 군수는 환영사에서 "매년 군 발전과 군민의 안녕, 그리고 군민화합을 위해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집중단속 실시

남원시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정형 CCTV, 이동형 차량 CCTV를 통해 공설시장, 남문로 휴직계 등 주요 시내 구간의 6대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이외에도 인도가 새로 조성된 남원시 동문로 구간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직접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주정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 제도도 시행하고 있는바 신고 방법으로는 동일한 위치에서 1분간격을 두고 사진 2장을 촬영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단속 대상 여부를 검토해 과태료(4~12만원)가 부과하는데 이는 주민신고제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정문 앞만 해당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원=정하복 기자

무주군태권도협회, 어려운 이웃 위한 성금 130만 원 기탁

무주군태권도협회 임원진들이 지난 10일 무주군청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3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지난 연말 무주군태권도협회 성과발표회 후 임원과 회원들이 각자 성의를 모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다.

이도우 회장은 “태권도 성지 무주를 대표하는 단체라는 자부심과 지역과 함께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으로 회원들이 다 함께 뜻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태권도 발전과 성지로서 무주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지역발전과 이웃 행복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태권도협회는 지난 2006년 태권도 진흥 및 육성, 홍보를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20명의 회원들이 태권도를 통한 학생, 성인, 노인의 건강증진 활동과 태권도 엘리트 꿈나무 육성, 태권도 성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군, 조경아카데미 교육생 모집...31일까지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오는 31일까지 ‘조경아카데미 아주심기’에 참가할 교육생 5명을 모집한다.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진안군에 전입할 예정이거나 신규 전입한 귀농귀산인을 대상으로 조경수 생산에 대한 경영 이해와 실습을 통해 사업 초기단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8개월 과정으로 진행될 이번 교육의 내용은 ▲조경수 생산 개론 및 실무 ▲작물론(산) 작기 실습 ▲농업 경영 및 마케팅 실무 ▲산림개발 및 조합설립에 대한 이해 ▲선진지 견학 ▲팝업스토어 운영 실습 등이다.

교육 이수 시 농림축산식품부 인정 교육 시간 150시간이 주어진다.

지원자는 워드 프로그램과 블로그 이용, SNS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farm1.com) 또는 다음 카페, 네이버폼 등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 10만원이 있다.

진안군귀농귀촌센터 담당자는 “이번 조경수아카데미는 진안군 귀농귀산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생산 개론부터 재배 및 수확 실습, 유통과 판매까지 조경수 사업 전반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장수읍, ‘찾아가는 마을 순회 간담회’ 주민 큰 호응

장수군 장수읍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추진한 ‘찾아가는 마을 순회 간담회’가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으며 읍장, 부읍장, 담당팀장, 담당마을 직원 등이 관내 46개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올해의 군정사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읍은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들에 대해 자체 처리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했다.

또한, 예산이 소모되는 사업은 군과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해 문제해결에 노력할 계획이다.

차주영 읍장은 “이번 간담회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해 신년 인사를 나누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편안하고 살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명품 관광 도시 사업 본격화

야경 투어·방송작가 팸투어 등 운영...새로운 관광·더 특별한 관광 선사

임실군이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천만관광 시대, 관광명품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임실방문의 해로 ‘이제, 임실을 바라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천만 관광객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관광, 더 특별한 관광’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군은 지난해 옥정호와 임실N치즈축제 등을 중심으로 한 사계절 축제로 888만명이 임실을 찾은 만큼, 임실방문의 해인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군의 대표 축제인 국화꽃과 함께 하는 임실N치즈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3대 축제에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관광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군은 임실N치즈축제의 전국적인 명성과 함께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 천오백만 반려인의 성지 오수 의견관광지, 왕의 숲 성수산, 국민관광지 사선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 육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먼저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전국 각지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는 옥정호 봉어섬



임실군이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천만관광 시대, 관광명품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생태공원에서는 4개의 대표 축제 기간에 입장료를 할인하는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숙박비 할인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관외 거주자가 관내 음식점, 유료 관광지·체험, 특산물 판매장 등을 이용할 경우 숙박비 결제액의 20%, 최대 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특별 투어 프로그램으로는 도내 5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표 관광지 투어를 실시하고, 매력적인 야간경관을 할

용한 야경 투어, 방송작가 팸투어 등 특별한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과 관광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올해는 천만 관광객 유치를 최우선 목표로 옥정호와 치즈테마파크, 오수 세계명견테마랜드, 성수산, 사선대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확고히 구축해 ‘관광중심지 임실’의 새로운 지평을 열 각오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2025년 군정 군민 위주 운영

15일까지 27개 과·127개 팀 별 목표와 전략 등 현안 보고회 가져

무주군이 행정 전 분야 주요 업무를 공유하며 2025년 군정 운영 방향 정립에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13일부터 군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 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진행 중이며 15일까지 6개 읍면 포함 27개 과 127개 팀의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간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부서 팀장과 팀원들이 참여해 상호 업무를 공유하며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예정으로, 무주군은 이것이 향후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 추진성과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공무원 각자의 역량과 부서 간 협업을 기반으로 실행력을 높여 나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올해 체류인구 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전개에 주력할 방침으로 ▲생태모험공원 조성을 비롯한 ▲태권브

이랜드 조성 등의 관광지원 확충에 우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산골영화제와 ▲무주반딧불축제, ▲생태농색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등의 관광 콘텐츠 육성은 주요 계획에 포함된다.

또 ▲태권시티 위상 강화, ▲에너지 복지 확대 ▲농업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노력 ▲취약계층을 고려한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과제 추진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주)리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업무협약

(주)리턴, 약 30억원 투자...체육 명소로 생활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장수군에 군민들이 날씨가 구애받지 않고 사계절 내내 운동할 수 있고 전국에 있는 유소년 축구선수들의 전지훈련 공간이 되거나 재활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재활훈련을 위한 회복의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이 조성된다.

장수군과 민간 기업(주)리턴(대표 고건희)은 13일 군청 내 회의실에서 최훈식 장수군수와 고건희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읍 두산리 일원에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주)리턴 측이 올해 상반기까지 민자 100%로 약 30억원을 투자해 장수읍 두산리 일원 장수군 부지에 3천㎡ 규모의 에어돔 실내 축구 연습장과 8백㎡ 규모의 실외 연습장 및 6백 6십㎡ 규모 실내 훈련장 등의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리턴은 전국 규모의 축구대회를 장수군에 유치하고



동계전지훈련 시행, 아시아 유소년 전선교류대회 등 다양한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계획하고 있고 군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 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리턴 측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20여 명의 인력은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스포츠 보조식품 개발 공장의 장수군 이전과 함께 제조에 군 농특산물을 사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어 장수군의 지역 경제는 물론 농업, 체육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내 다목적 체육시설이 들어서면서 생활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전문가 컨설팅 통한 진로·직업 탐색 지원

진안군은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5일 동안 진안읍 사동팔달센터에서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년 진안군 겨울방학 진로캠프’를 실시한다.

이번 진로캠프에서는 관내 청소년들이 유전자지문을 기반으로 한 선천적 적

성검사를 실시해 자기 이해와 자아정체성을 찾고 다중능력검사 후 후천적 검사를 통해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며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전준성 진안군수는 “지난해부터 우리군에서는 진로 진학 컨설팅, 진로캠프, 학습코칭 등을 추진해 관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미래 진안을 이끌어갈 자기 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지원해 도성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학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 덕치면, 마을지킴이 대상 안전교육

노인일자리 참여자 10명에 안전사고 예방 등 교육

임실군 덕치면 지난 6일부터 2일 동안 노인일자리(마을지킴이) 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해, 노인일자리 사례로 배우는 안전사고 예방,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이 알기 쉽게 회의실에서 동영상 시청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어르신들이 OX 퀴즈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유형별 사고에 대해 예방 및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마을지킴이 사업은 면 소재지 주변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환경정비를 통해 깨끗한 내 고장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는 사업이다.

이형준 덕치면장은 “어르신들이 교육을 통해 일상속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해 1년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 장계면 지사협, ‘2025년 제1차 정기회의’ 개최

장수군 장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장호·임재성)는 지난 10일 장계면 가야문화역사관 1층 세미나실에서 ‘2025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한해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행사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202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간 운영 계획과 함께 ‘나눔감사의 밤’ 행사 추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논의 결과 ‘홈 클리닝 사업’, ‘고독제로 프로젝트’ 등 총 9개의 특화사업이 운영 계획에 포함됐으며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나눔 감사의 밤’ 행사는 오는 21일에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임재성 위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다”며 “올해는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 더 살기 좋은 장계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환경농업대학 미래농업 교육생 80명 모집

진안군이 지역농업 현장 최고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2025 진안환경농업대학’ 교육생을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모집한다.

진안환경농업대학은 10개월(70시간) 과정으로 치유농업 40명, 사과 40명 등 총 80명을 모집한다.

치유농업과정은 진안군의 추진 목표인 생태건강치유도시를 표방하기 위해 민간 자격증 과정을 비롯해 치유농업의 이해와 관련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과 과정은 진안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사과나무 관리법 등에 대해

교육될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이론과 현장 교육 및 견학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지원 자격은 진안군에 주소권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 및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온라인(신청서 작성 링크, 이메일)으로 가능하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 번암면, ‘을사년 시무식’...신규 이장 임명장 수여

장수군 번암면은 지난 10일 ‘2025년 을사년 번암면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무식에서는 원대론마을 이장 이취임, 지난 2일자 인사발령 관련 직원 송환인사 등의 행사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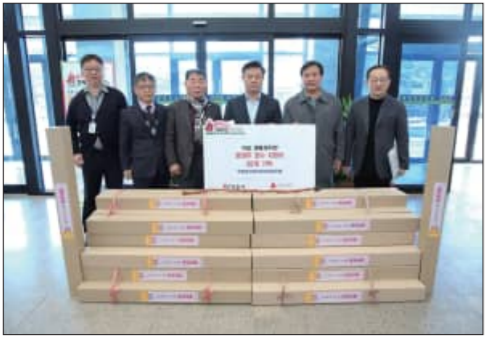
신임 이장 1명과 유임된 이장 31명 등 총 32명의 이장은 각 마을을 대표해 행정과 번암면민의 가고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 첫 임기를 시작한 원대론 마

을 이상수 이장은 “앞으로 번암면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성은 면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장수군의 발전을 위해 면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장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주민간의 화합 단결과 이해조정 역할 등 번암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정읍시 덕천면, 어르신들께 명아주 장수지팡이 선물

정읍시 덕천면에서 정성으로 제작한 효사랑 장수지팡이가 어르신들께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덕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대성, 백근대 면장)는 지난 13일 명아주로 제작한 특별한 '효사랑 장수지팡이'를 지역 어르신들과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협의체가 지난 2023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특화사업으로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다.

협의체 회원들은 명아주의 식재부터 수확, 건조, 껍질 제거, 사포질, 율철 작업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며 정성을 쏟았다.

이날 전달된 장수지팡이는 총 200자루로, 이 중 150자루는 덕천면 어르신들께 나눠드렸고, 50자루는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탁했다.

한편, 장수지팡이의 재료로 쓰인 명아주는 예로부터 중풍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며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상징적인 재료로 알려져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완주군 이서면 정숙가든, 2백만원 상당 사골곰탕 후원

완주군 이서면에 소재한 정숙가든이 약 200만 원 상당의 사골곰탕 100인분을 이서노인복지센터에 후원했다.

후원받은 사골곰탕은 이서노인복지센터 직원들이 저소득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안정숙 대표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사골곰탕을 드시고 추운 겨울을 잘 나시길 바란다"며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해경 이서노인복지센터장은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사)한국나눔연맹, 7천만원 상당 물품 기탁

"김제시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백미·컵라면·김치 등 물품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사)한국나눔연맹(중앙총재 안천웅)이 13일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백미(10kg) 1,000포, 컵라면(12개입)·김치(5kg) 각 1,000상자 등 7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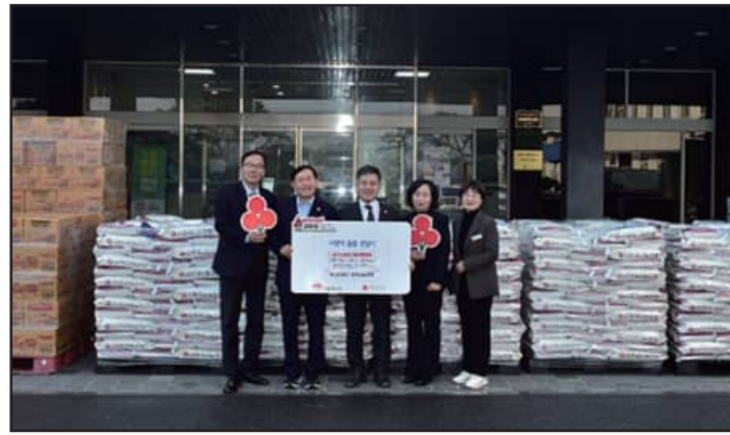
안천웅 중앙총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과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사)한국나눔연맹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려운 시기 일수록 함께 하는 마음이 모여진다

면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사)한국나눔연맹은 서울, 경기, 대구 등 전국 26개소 천사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3월 22일 김제 요촌동 일원에 천사무료급식소 김제지소를 마련해 결실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350명에게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따뜻한 설렁탕 한 끼를 나누며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보듬어 드리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는 (사)한국나눔연맹이 13일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백미1,000포, 컵라면·김치 1,000상자 등 7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익산시청 축구동호회 '축우회', 사랑의 연탄 2,000장 나눔

시민을 위한 공무도·이웃을 위한 기부도 척척...팔봉동 10여 세대 방문해 연탄 봉사

익산시청 직원으로 구성된 축구동아리 '축우회(회장 이용범)'가 사랑의 연탄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했다.

지난 13일 팔봉동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축우회는 지난 11일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 후원과 배달 봉사에 구슬땀을 흘렸다.

축우회는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 67명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연탄 2,000장을 마련했다.

이날 회원 20여 명은 팔봉동 약 10세대를 방문해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한 직원은 "담과 연탄으로 범벅돼 서로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지만, 평소 축구로 단련된 체력과 팀워크 덕

분에 호흡이 척척 맞아 힘든 줄 몰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용범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회원들에게 고맙다"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나누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기부가 확산해 따뜻한 지역 공동체 문화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동아리 활동이 직원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실천의 장이 되고 있어 뿌듯하다"며 "직원들의 여가 생활 확대와 활기찬 직장 분위기 형성을 위한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청 축우회는 1991년



익산시청 직원으로 구성된 축구동아리 '축우회(회장 이용범)'가 사랑의 연탄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했다.

설립된 익산시 직원 동호회로 회원 67명이다. 매주 2회 친선도모 선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를 진행하며 분기별 친선대회

/익산=최준호 기자

순창경찰서 전인태 경위, 베스트 SPO

전북경찰청 주관,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 선발



순창경찰서(서장 윤상현) 여성 청소년 계(자치경찰 사무) 전인태 경위가 전북경찰청에서 주관하는 2024년 하반기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에 선발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전인태 경위는 지난해 2월부터 순창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활동 중이다. 전 경위는 평소 학

교폭력 예방활동과 지역 내 비행 청소년 선도,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등 청소년 보호 지원에 앞장선 공을 인정받았다.

전인태 경위는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선발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예방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이어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중앙청과, 3년 연속 김제시에 5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중앙청과 이원석 대표가 13일 고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면서 고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첫 3년 연속 기부자로 누적 기부금이 1,500만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중앙청과는 지난 1989년에 창립된 도매시장 법인으로, 농산물 가

격 안정화와 유통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대표 표는 국군 장병 위문품 전달 등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김제 광활농협과의 인연으로 김제시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 대표는 "김제시와 맺은 특별

익산시 함열읍 기관·단체 신년하례회 성료

익산시 함열읍 주민자치회(회장 박종철)는 새해를 맞아 지난 10일 지역 기관·단체와 함께 하는 신년 하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관·단체장과 이장 등 100여 명은 지난해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 발전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지나해 연탄나눔, 이웃돕기, 환경정비 등 지역 화합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함열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임실군 지사면 정정순 님, 이웃돕기 성금 50만원 전해

임실군 지사면 정정순 前 생활개선회장이 행복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평소 지역사회 복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9일 지사면 행복보장협의체에 현금 50만원을 기탁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기탁받은 현금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 및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정순 님은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성금을 기부하게 됐다"며 "행복보장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길영 지사면장은 "정정순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될 것이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군산 아해뜰어린이집, 나운3동에 54만 6천원 기부

군산시 미룡동 소재 아해뜰어린이집(원장 박해정)은 13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고 희망2025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54만 6천원을 나운3동(동장 김소영)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아해뜰어린이집은 2022년부터 매년 연말 바자회를 개최해 아이들이 아끼는 장난감, 동화책, 옷 등을 판매한 수익금을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나운3동에 기탁하고 있다.

박해정 원장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수익금을 기탁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원생들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배우고 실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한 인연으로 김제를 응원하기 위해 고흥사랑기부금을 하게 됐는데 지역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한 마음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겨울에 미세먼지농도가 높아지는 이유



난방으로 인한 연료 사용량 증가로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대기순환이 불안정하고 강수량이 낮아 미세먼지 제거 어려움



추운날씨로 환기가 쉽지 않아 음식조리과정 발생하는 실내미세먼지 농도 증가



추운날씨로 자동차 등의 배기가스가 잘 휘발되지 않음

〈一事一言〉



최상목은 왜?(1)

유시민
작가

몇몇 신문사의 몇몇 기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을 띄우고 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셋 가운데 둘만 임명한 것을 '묘수'라고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가 하면,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과 금감원장 이복현의 최상목 지지 발언을 앞 다퉈 보도했다. 최상목이 무슨 초능력이라도 있어서 한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낼 것만 같다. 과연 그렇게 기대해도 좋을 사람인가? 궁금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공직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았다.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다. 왜 임명했을까? 살아남기 위해서다.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전면 거부했다면 야당이 즉각 탄핵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한덕수처럼 직무를 정지당하고 내란 피의자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출석 요구를 받았을 게 뻔하다. 왜 둘만 임명했을까.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공범들과 절연하지 않기 위해서다. 최상목은 내란범들을 보호하면서도 탄핵을 피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했다. 그런 점에서 목적 합리성 있는 선택이었다.

최상목은 평생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살았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대통령 놀이'를 해볼 기회를 포기하지 않는다. 되도록 오래 즐기고 싶어 한다. 그래서 대행의 권한으로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것이

다. 근거 없는 험담이라고? 그렇지 않다. 그의 이력과 계열링 선포 전후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달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는 상황을 이주호 체제가 넘길 수 있겠는가." 어느 신문은 익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최상목이 권한대행 자리를 지킨 이유를 설명했다. 애국심과 책임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상목이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의 언행을 보면 사실로 믿어도 될 듯하다. 최상목이 유능한 경제전문가라는 말이 아니다. 최상목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는 뜻이다.

제주항공 사고 현장에 간 것은 워낙 큰 참사였으니 당연히 그래야 할 일이었다고 하자. 하지만 그것 말고는 다 이상했다. 왜 가는지 모를 곳에 가서 왜 하는지 모를 말을 했고 왜 그러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 해병 부대를 방문해서 모양새도 나지 않는 거수경례 사진을 남겼다. 흔해 빠진 '대통령 놀이'다. 미국 대사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 한미동맹 노래를 부른 것도, 경제계와 중소기업인 신년하례회에 가서 위기 극복을 위한 단결을 호소한 것도 다 그런 놀이였다. 소위 'F4 회의(거시경제-금융간담회)'를 매주 하겠다고 호언한 것도 마찬가지다. 원래 하던 회의 아닌데, 내수를 촉진하고 환율을 안정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

면서 자주 회의를 하겠노라고 말한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질 리는 만무하다.

최상목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로 소일한다. 꼭 해야 할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윤석열의 내란이 야기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최상목은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을 거부하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은 한

다.

왜 그럴까? 과거에 했던 일과 살아온 과정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최상목은 전두환 정권 시절 서울대 사법학과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독자라는 이유로 '이병 전역'했다. 군 복무를 사실상 면제받은 것이다. 재무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두 차례 국가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공부했다.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 비서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 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까지

직업공무원으로서 차근차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공직자로서 큰 위기를 맞았지만 잘 이겨냈다. 청와대 금융경제 비서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되었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미르재단 설립 회의를 열었다.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는지 기소를 피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공직을 떠났다. 몇몇 금융투자회사의 사외이사과 농업협대학교 총장 등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 머물다가 2022년 3월 윤석열의 대통령직인사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공직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용산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거쳐 현재 내란공범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힘당 원내대표 추경호의 후임 경제부총리가 되었다. 최상목은 경제수석 시절 탈중국 노선을 공개 표명해 대규모 무역적자 사태를 불러들였다.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으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자초했다. 경제부총리가 되어 자신이 경제수석으로서 만들었던 정책을 그대로 믿고 나갔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책임자가 누구인가 묻는다면 첫 번째로 나올 이름이 바로 최상목이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인론 민들레에 게재될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북 청년들의 미래는 곧 전북의 미래다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 직업 선택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 개인의 삶과 정체를,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도내 청년들에게 있어 직업 선택은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2025년 상반기 전북 청년직무인턴' 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도내 청년들에게 직무 체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공공기관 및 기업으로의 구직을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단순히 일회성 경험을 넘어 청년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견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 지난해 연말 선발 과정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는 점은 이 사업이 청년들의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방증한다.

우선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직업 세계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청년들은 직무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커리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직업을 얻는 것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도는 도내 37개 공공기관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들

에게 양질의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역내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북은행과 같은 주요 기관의 높은 경쟁률은 지역 청년들이 이러한 기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연결성을 제공한다. 안정적인 소득과 직무 경험은 청년들이 독립적인 삶을 꾸리는 데 필수적이며 직장 내 동료와의 협력 및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전북도가 지속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역 청년들의 직업 안정성과 커리어 발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인턴십 종료 후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강화하거나 직무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전북 청년들의 미래는 곧 전북의 미래다. 청년들이 전북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전북도의 '2025년 상반기 전북 청년 직무인턴' 사업이 그 시작점이 되어 전북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문화재 열전



선운사 영산전 목조삼존불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물, 불교조각, 불상
-지정일 - 1973년 6월 23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제출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1월 / 이 외 수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위에
내가 서있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한밤중에 바람은 날개를 푸둑거리며
몸부림치고
절망의 수풀들
무성하게 자라 오르는 망명지
아무리 아픈 진실도

아직은 꽃이 되지않는다.
내가 기다리는 해빙기는 어디쯤에 있을까
얼음 밑으로 소리죽여 흐르는
불면의 가슴
가다리는 마음 간절할수록
시간은 날카로운 파편으로
추억을 살해한다.
모래바람 서걱거리는 황무지

얼마나 더 걸어야 내가심은 감성의 날말들
해맑은 풀꽃으로 피어날까
오랜 폭설 끝에
하늘은 이마를 드러내고
나무들 결빙된 햇빛의 미림자를
털어 내며 일어난다.
백색의 풍경 속으로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눈부시다.

시인 약력 ; 1946년 경남 함양 출생. 인제고를 졸업하고 1964년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했다 1975년 중편 '혼창'이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

서 정식 등단했다. '겨울나기', 장편 '들개', '칼', '산목', '벽오금학도' 등을 비롯 에세이 '내 잠속 에 비 내리는데', '말더듬이의 겨울수첩' 등을

간행했다. 소설 '혼창'과 '꿈꾸는 식물', 시집으로 '꽃술잔 나비' '그리움도 화석이 된다', 에세이 '내 잠 속에 비 내리는데' '학악학악' 등이 있다.

누구나 행복한 세상

전북타임스가 동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同行

길을 같이감

JBT 전북타임스신문

새만금, 대한민국 8대 크루즈 기항지로 태어난다



- ◆ 2026년 새만금 크루즈 유치로 지역관광·경제활력 강화
- ◆ 테마브랜드 발굴 등 민관 협업 기반 크루즈산업 육성 본격화
- ◆ 전북자치도·새만금개발청 등 8개 기관 협약도 지난해 맺어

전북특별자치도가 크루즈산업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 미래먹거리의 새로운 기회이자 관광 투자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크루즈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포트세일 등 투자유치 관련 계획을 반영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연초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권역 크루즈선 기항지 확보전략, 크루즈산업 육성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 기본구상 제시를 위한 용역을 지난해 9월 완료한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새만금개발청과 공동으로 진행될 용역에서는 오는 2026년 새만금 신항만의 크루즈 기항지 도약 및 관련산업 발전 가능성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와 새만금청이 크루즈산업에 뛰어든 것은 크루즈선박을 비롯해 승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세계 크루즈 선사 연합(CLI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세계 크루즈 산업의 파급효과는 생산량 1억 3,760만 유로, GDP 6,890만 유로, 고용 121만명, 총임금 4,280만 유로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다.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외래 크루즈 관광객 1인 소비동향 및 1회당 기항객 수를 조사한 「크루즈 실적 발표 자료(2023.07)」에서도 최근 5년(2016~2019, 2023) 1회당 평균 기항객수는 1,367명으로 집계됐으며, 1회 입항 당 승객이 지출하는 직접 지출액은 657,855달러(약 9억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새만금 크루즈산업은 크게 관광과 해운·항만·조선 등 4개 분야에 걸쳐 11개 업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균형발전을 통한 가치사슬체계가 형성돼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항지 배후도시와의 동반성장 가능성도 크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과 인접해 있는 데다 아시아 유명 기항지들과 비교해 가까워 크루즈 노선 창출의 적지로, 대한민국의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지역관광 및 경제 활력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2023년 27만명 수준이던 방문 크루즈 관광객을 2027년 100만명으로 확대하고, 크루즈를 통한 소비 규모 또한 지난해 753억원에서 2027년 2,791억원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전북자치도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도는 2026년 차질 없는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부두 개장을 위해 지난해 11월 8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예정된 용역 추진도 서두를 계획이다.

*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군산세관, 국립군산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동시에 크루즈 기항지 구축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체계 준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먼저 크루즈 테마브랜드 설정을 추진한다. 동해안 속

초지역이 설악산과 안보를 내세우고, 서해안 서산이 종교와 명상을 주요 테마로 제시하는 것처럼, 새만금을 'K-컬처가 함께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하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다.

또 크루즈 하선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도 진행된다. 새만금 내 신시·야미 관광복합지구와 웰린지 테마파크, 국립새만금수목원 등 향후 구축되는 지역자원과의 시너지 창출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기항지 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새만금 및 근교도시 숙박·관광콘텐츠 확충과 함께 관광객 소비 촉진을 위한 쇼핑시설 유치도 논의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 신공항과 새만금 철도, 광역도로망을 활용한 관광객 이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새만금 크루즈 유치를 위한 외연도 확대한다. 국제박람회 참석 등을 통한 크루즈 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프린세스, 코스타, 펜스타, 롯데ITB 등 관련 선사 및 여행사와 새만금 기항지 유치를 위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국내외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기항 장려금과 접안료 할인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산업 지원체계도 준비한다. 식품과 생필품 등 크루즈에 공급되는 선용품 비중을 지역 생산품으로 늘리는 방안 마련과 함께 새만금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와 플래너, 승무원 등 전문 인력 양성도 추진될 계획이다.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도 크루즈 관광의 산업 친화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원활한 터미널 운용과 관광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세관·검역·보안 등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검토하고, 해외 선진 사례와 같이 환경 친화적 터미널 운영 방식 등 도입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새만금은 향후 서해안을 대표하는 국제 크루즈 기항지로 도약해,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 할 계획이다"며,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새만금을 대한민국 8대 기항지로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크루즈 중심지로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이겠다"고 말했다.

/편집=정혜민 기자

<인터뷰> 윤경준 배재대 교수

전문가가 바라본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



"새만금은 지리적으로 크루즈산업 발전 여건이 우수합니다"

1급 선장 출신인 윤경준 배재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교수는 새만금에 대해 "외적으로는 중국 시장과 가깝고, 내적으로는 서해안권 선용품 산업 단지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새만금에 선용품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인천과 서산, 여수, 목포 등 서해안 등지의 항만에 선용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용품 공급은 크루즈 경제효과 중 가장 파급력이 큰 분야라고도 했다.

또 윤 교수는 "관광여건 등을 볼 때 새만금은 크루즈 기항지로 매력도가 높은 지역이며, 이를 기반으로한 유치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리나항만 같은 ▲크루즈 관광 매력물 조성 ▲새만금 쇼핑센터 유치 ▲크루즈선 인센티브 제도 시행 ▲전용터미널 구축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복이 쌓이는 아름다움
무주의 겨울을 걷습니다.